

#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비교연구

**박 명 아**  
(경희대학교)

**조 시 울**  
(경희대학교)

**신 혜 리\***  
(경희대학교)

**박 설 우**  
(경희대학교)

**김 영 선**  
(경희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Baltes와 Baltes의 SOC 모델을 이론적 뒷받침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검증하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2,140명을 추출한 뒤, 연령의 이질성에 기초하여 전기세대(1955~1959년생) 1,035명과 후기세대(1960~1963년생) 1,105명으로 구분하였다.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통해,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적 노후준비 요인과 관련하여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금융자산과 가계총지출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개인연금,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소득은 전·후기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전·후기 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세대별 욕구에 최적화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SOC 대처전략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용어: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재무적 노후준비, 삶의 만족도, SOC이론, 국민노후보장패널

본 연구는 제1저자(박명아)의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 신혜리, 경희대학교(itc.shinhyeri@gmail.com)

■ 투고일: 2017.12.5    ■ 수정일: 2018.4.13    ■ 게재확정일: 2018.4.20

## I. 서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여 예상보다 1년 빨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7).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속도의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사회 진입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대량 은퇴를 시작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호성, 2007).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줌으로써 복지정책의 광범위한 스펙트럼 속에 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노년사회 진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모 부양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지출 부담이 매우 높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sup>1)</sup>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권중돈, 조주연, 2000). 이러한 부족한 재무적 노후준비는 노인 빈곤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노후 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김시월, 조향숙, 2013). 실제 통계청(2015)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51.8%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은퇴 후 길어진 노후생활을 위한 재무적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대 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성장하던 시기의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출생자와 1960년대 출생자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로 인한 의식과 경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곽인숙, 홍성희, 2013). 이에 따라 9년간에 걸쳐있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출생

---

1) 통계청(2016)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무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인데 비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37.3%이며 '전혀 되어있지 않다'가 19.3%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의 동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방하남, 2011; 한혜경,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 중에서 특히 연령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로 다른 역동과 배경을 가진 1950년대 태어난 전기 베이비붐 세대와 1960년대에 태어난 후기 베이비붐 세대로 구분하여 그들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긍정적이며, 행복한 노후 생활과 성공적 노화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강해자, 2013).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를 지향하는 Baltes와 Baltes의 SOC 대처전략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여 SOC Model을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적용하였다. 신 노년층으로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의 정점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노년사회 진입은 국가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동적인 성공노화 모델인 SOC 전략을 적용한 재무적 노후준비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세대별 욕구에 최적화된 정책방향과 실천적 대안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둘째,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논의

### 1.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baby boom)은 사회적 격변기인 전쟁이나 극심한 불황기가 지난 뒤 사회적·

경제적 안정기에 출생률이 증가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sup>2)</sup>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한다(Doepke, Hazan, & Maoz, 2015).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 구조상 그 비중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존의 사회질서와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함인희, 200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를 정의하는데 있어,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인용하고(박시내, 심규호, 2010) 통계청(2010)이 발표한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서 규정한 베이비붐 세대 연령기준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한 코호트로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각 나라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지속기간이나 그 시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7,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덩크족(Dual Income No Kids)과 여피족(yuppies)은 이들을 대신하는 이름이다(박태정, 2013).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태어난 단카이(團塊: 덩어리)세대(1947~1949년생)로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약 800만 명에 도달한다(박시내, 심규호, 2010). 이들은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세대로서 경제신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강하지만 버블 경제를 초래한 세대이기도 하다(함인희, 2002).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한 1955년부터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대를 말하며 약 68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통계청, 2016)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인구 집단을 말한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이룬 성장동력의 세대이다(이현진, 2014).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일부는 이미 은퇴를 경험하였거나 상당수가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노년사회 진입은 향후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2) 인구집단을 분석할 때 시대(period), 생애주기(life stage), 코호트(cohort)로 구분하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코호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정 시기에 태어나 행동양식 및 정체성,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세대를 말한다(박재홍, 2001).

한편 베이비붐 세대가 동일한 생애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집단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연령의 이질성이 다(곽인숙, 홍성희, 2013). 우선 베이비붐 세대를 규정하는 연령에 근거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9개 출생 코호트를 포괄하는 비교적 큰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시대적 배경과 생애과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한경혜, 2010; 방하남,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베이비붐 세대 종합정보포털, 서울 50+국제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 노년층 연구보고서, 경기도 베이비붐세대 고용 관련 보고서의 세대 구분기준을 참고로 해서 1950년대 출생자(1955~1959년생)를 전기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출생자(1960~1963년생)를 후기 베이비붐 세대로 구분하고자 한다<sup>3)</sup>.

베이비붐 관련 세대 간 비교연구를 한 국외 선행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경제상태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등에 관한 연구와 부모 세대 및 이전 세대와의 경제적 자원상태를 비교하는 연구들(Easterlin, Schaeffer, & Macunovich, 1993; Sabelhaus & Manchester, 1995; Keister & Deeb-Sossa, 2001; Lusardi & Mitchell, 2007)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전기세대와 후기세대로 구분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연령별 이질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곽인숙, 홍성희, 2013), 고등교육의 기회여부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를 전·후기 세대로 구분한 연구(김영란, 주재선, 2010), 베이비붐 세대의 내적인 다양성(연령, 소득, 직업, 거주 지역, 배우자유무, 개인의 가치, 교육수준 등)과 그에 따른 노후 준비의 차이와 노화 인식 등을 분석한 연구(방하남, 2011), 베이비붐 세대를 생애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김혜경, 마경희, 2015) 등이 있다.

## 2. 재무적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유지하

3)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1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9~1975년생)로 나누거나(김영민, 2006),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75년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정의신, 2008).

기 위한 계획과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창제, 2014).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보장이 낮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노후준비가 요구되며, 노후를 보다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 및 계획이 필요하다(박성준, 2016).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에 조기 은퇴가 갑자기 증가하고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문제와 노후 소득준비의 취약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무적 측면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박창제, 2014). 재무적 노후준비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근로활동을 하는 것 없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무적 노후준비는 모든 영역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진, 2014). 재무적 노후준비 방식에는 크게 공적인 노후준비와 사적인 노후준비가 있는데, 공적인 노후준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포함) 등 공적이전수단이 있고, 사적인 노후준비에는 근로를 통한 소득이나 저축, 부동산, 보험 등의 사적 소득과, 자녀나 친척 등 비공식적 지지망에서의 사적 이전소득 등이 있다(이기성, 2005).

대부분의 재무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들은 공적인 노후준비(Morgan & Eckert, 2004; Pinquart & Schinder, 2007; 이승신, 2012)와 사적인 노후준비(Morgan & Eckert, 2004; Yuan, 2006; 홍성희, 곽인숙, 2006; 곽민주, 이희숙, 2015; 김동배, 박은행, 김성웅, 2009)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관적인 노후준비 충분성(여운경, 정순희, 문숙재, 2007)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재무적 노후준비에 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적절한 재무적 노후준비는 중년기가 은퇴를 평안하게 수용하는데 기여하며(Anderson et al., 2000),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재무적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lass, 2003). Morgan과 Eckert(2004)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위한 재무적 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은퇴소득에 대한 사회보장 요청, 재무계획가와 상담, 은퇴저축상품 투자, 전년도 저축과 투자로 나타났다. Yuan(2006)은 연령, 교육수준, 서비스 의식지수, 지불 능력, 지역사회 책임의식, 보호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재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대한 국내연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박창제(2014)는 베이비

붐 세대의 사적인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투자신탁과 고이자 저축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재무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나지나 등(2010)의 연구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무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홍성희와 곽인숙(2006)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계획에 따른 재무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노후를 대비한 재무적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Neugarten, Havighurst, Tobin(1961)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지표(Senior's Living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신현구, 2008).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삶의 질 또는 생활 만족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스러운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인해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영역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이현진, 2014).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재무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소득, 자산, 부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곽민주와 이희숙(2015)은 재무적 요인으로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월평균 부채상환액이 낮을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임동진과 문상호(2014)는 소득, 고용형태, 건강변수, 장애특성을 적용하여 재무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손종철(2009)은 은퇴 당시의 일자리 형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은퇴인 경우

부동산 보유액이 적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2011)의 연구결과 공적연금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인연금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가입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승신(2012)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 노후생활비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임병인과 강성호(2005)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재무적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저소득층일수록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들이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4. SOC(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대처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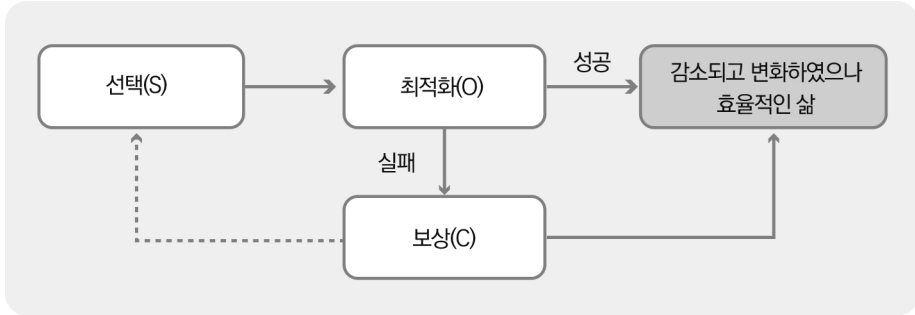
SOC 이론은 전 생애 발달과정의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이루기 위해 노화에 따르는 삶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을 강조하는 전략이론이다(Baltes & Baltes, 1990).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기 위해 선택·최적화·보상의 SOC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것이라는 기본적 가정을 하고 있다(Freund & Baltes, 2002).

SOC 이론의 첫 번째 전략인 선택전략(Selection)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잠재 능력과 자원의 상실이 발생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외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특정 목표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Backman & Dixson, 1992). 이러한 선택 과정을 통해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김미혜, 신용연, 2013). 둘째, 최적화(Optimization)전략이란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영역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다(Baltes & Baltes, 1990). 이러한 최적화전략은 발달적 잠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안지연, 김애순, 한광희, 1998). 셋째, 보상(Compensation)전략은 선택영역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손실되더라도 보완과정을 통해 상실된 능력을 보상하는 방안을 일컫는다(Baltes & Baltes, 1990). 본 연구에서는 SOC 모형의 실천적



적용을 위해 선행연구(석재은, 이기주, 2010)를 토대로 [그림 1]의 모형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림 1. 선택·최적화·보상 체계의 진행구조(석재은 등, 2010)



최근에는 삶의 만족에 대한 SOC 대처전략 모델이 주목 받으면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OC 대처전략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국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Freund와 Baltes(2002)는 세대별로 SOC 대처전략의 사용행동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년 세대가 가장 많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일수록 전략 사용이 낮아지는 역U자 형태가 나타나고, SOC 전략이 삶의 만족도에 관한 주관적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OC관련 인생관리 전략의 효과성(Staudinger & Freund, 1998; Chou & Chi, 2002; Freund & Baltes, 2002; Jopp, 2002)과 SOC 전략사용과 자원과의 관련성(Lang, Rieckmann, & Baltes, 2002; Jopp & Smith, 2006) 등과 같은 SOC 전략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SOC 대처전략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안지연, 김애순, 한광희(1998)는 청년 집단과 중·노년 집단을 대상으로 SOC 대처전략과 대처행동양식,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상관없이 SOC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박성준(2016)은 SOC 전략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고찰하였으며, 송혜자(2009)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SOC 대처전략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SOC 대처전략에 대한 실증적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SOC 모형이 노화와 관련된 삶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SOC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구축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의 6차 연도(2015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연도 자료는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25개 지역별로 주택의 특성, 산업별 취업자 수, 행정구역 등을 분류 지표로 삼아 조사구를 분류하고 확률비례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자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후소득 보장의 욕구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연금 및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중·고령층 노후준비와 생활을 조사 목적으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료이다.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인자와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계의 재무적 준비상태를 구성하는 자산, 부채, 소득, 소비, 금융자산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KReIS의 6차 연도 조사응답자 7,983명 중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자를 선별하였다. 무응답 및 결측 처리를 제외한 전체 베이비붐 세대 2,140명을 전기 베이비붐 세대(1955~1959년생) 1,035명과 후기 베이비붐 세대(1960~1963년생) 1,105명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의하고 측정하였다<sup>4)</sup>

---

4)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연도 개인단위 횡단자료(KReISP06)를 적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 가. 삶의 만족도(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주거상태나 주거환경, 이웃관계, 경제적 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자녀관계, 형제·자매 관계, 직업, 건강, 여가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묻는 11문항과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묻는 1문항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변수인 단일항목 1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나. SOC 대체변수<sup>5)</sup>(독립변수)

SOC 이론의 선택전략, 최적화전략, 보상전략을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SOC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대체변수를 활용한 선행연구(김미혜, 신용연, 2013; 이수현, 2017)를 참고하여 KReIS 6차 연도 자료에서 각각의 전략에 적합한 변수들로 재구성한 대체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선택전략(S)에 대한 Baltes와 Baltes(1990)의 정의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경제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후생활비준비’라는 목표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노후생활비준비여부’를 선택전략의 대체변수로 적용하였다. 패널 자료에서 노후생활비준비 변수는 현재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1, 준비 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설정하여 더미 코딩해서 분석하였다.

둘째, 최적화전략(O)에 대한 Baltes와 Baltes(1990)의 정의에 따라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자원을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공적연금 가입’, ‘개인연금 가입’, ‘퇴직연금 가입’을 최적화전략의 대체변수로 설정하였다. 패널 자료에서 공적연금 가입변수는 국민연금 또는 특수지역연금에 대한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연금 가입은 민간 연금보험이나 저축가입 여부로 측정하였다. 퇴직연금 가

가계총지출과 가구원수를 제외하고 개인단위 데이터가 투입되었다.

5) 대체변수(proxy variable)는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획득이 곤란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혹은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원래 변수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변수를 의미한다 (김미혜, 신용연, 2013).

입은 선행연구(서인옥, 2007; 류건식, 이봉주, 2008; 이지영, 2011)에서와 같이 퇴직금을 퇴직연금 변수에 포함시켜 분석에 적용하였다.

셋째, 보상전략(C)에 대한 Baltes와 Baltes(1990)의 정의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때, 그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으로 상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보상전략의 대체변수로 설정하였다. 패널 자료에서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지급해 준 일체의 정기성 현금 지원금(공적연금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소득, 그 외 사회보장급여)을 포함하며, 사적이전소득은 동거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기타 동거 가족으로부터 받은 금액, 비동거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 비동거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비동거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금액,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금액,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 사회·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성직자 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 다. 통제변수

### 1) 재무적 노후준비 요인

통제변수로 설정한 재무적 노후준비 요인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은 지난 한 해에 근로를 통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로 임금·봉급·보수 금액, 농림·어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부업소득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금융소득은 지난 한해에 금융 투자방식을 통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로 예·적금, 국·공채권 이자금액, 주식 등의 배당금 금액, 주식매매차익의 금액, 사적으로 빌려준 돈의 이자금액으로 측정하였다. 부동산소득은 집세(월세)소득 금액, 각종 임대료소득 금액, 부동산 매매차익 소득 금액, 권리금차익 소득 금액, 기타 부동산소득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가계총지출은 가계의 한해 총 지출로서 조사대상자 개인이 속한 가구의 가계총지출로 측정하였으며 교육비, 보육비, 기타소비 및 기타 비소비 지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동산자산은 소유 주택, 임차 주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소유 사업체, 기타 소유 부동산의 현재 가격으로 측정하였다.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의 예·적금, 개인연금, 저축성 보험 불입액 시가총액, 적립펀드 납부금, 주식투자자금, 유가증권, 빌려준 돈, 껌돈, 기타

금융자산, 퇴직연금 총 불입액으로 측정하였다.

## 2)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리코딩하였다. 연령은 역연령에 근거한 만 연령이 사용되었으며,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는 1, 고등학교 졸업은 2, 전문대졸 이상은 3으로 리코딩한 서열척도가 사용되었다. 배우자 유무는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더미 코딩하고 가구원수는 조사 시점의 조사대상 개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측정하였다.

표 1. 분석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구 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독립변수	선택전략 (S)	노후생활비 준비여부 예=1, 아니오=0	
	최적화전략 (O)	공적연금가입 <sup>6)</sup>	있음=1, 없음=0
		개인연금가입	있음=1, 없음=0
	보상전략 (C)	퇴직연금가입	있음=1, 없음=0
공적이전소득 <sup>7)</sup>		있음=1, 없음=0	
통제변수	경제적 요인	사적이전소득	있음=1, 없음=0
		금융소득	있음=1, 없음=0
	통제변수	근로소득	있음=1, 없음=0
		부동산소득	있음=1, 없음=0
		가계총지출	로그변환
		부동산자산	로그변환
	인구 사회학적 요인	금융자산	로그변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졸 이상=3
가구원수		연속변수	
배우자 유무		있음=1, 없음=0	

6)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입유무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t-test와 Anova를 통해 검정하였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리커트 척도의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므로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Ordered Logit Model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자주 쓰이는 리커트형(Likert-type Scale) 응답을 회귀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산형 응답을 다루지 못한 전통적 회귀모형의 좀더 발전된 형태의 모형이다(이성우, 2005).

기존의 모형들은 순서화된 응답을 다룰 때 단순히 평균을 구하거나 응답번호를 그대로 회귀식에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Ordered Logit Model은 이러한 유형의 응답을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열종속변수를 등간변수로 취급하고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응답범주가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선형회귀모형은 왜곡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서열변수일 때, 오차항은 이분산성과 비정규성을 보여주어, OLS(ordinary least squares)의 가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서열회귀모형의 하나인 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한다(Armstrong & Jackson, 2011).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응답 범주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범주로 구분된 순서형인 점을 고려하고, 독립변수의 일부는 양적 변수임을 감안하여 Ordered Logit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7)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은 보유여부뿐만 측정하는 경우 다른 변수들과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분석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평균소득 10%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전·후기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전기세대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인데 비해, 후기세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기세대의 평균연령은 KReIS 6차 연도인 2015년 기준으로 56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기세대는 54세가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전·후기 세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전기세대는 중·고졸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후기세대는 고졸 이상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이 고교평준화를 비롯한 고등교육 혜택의 확대로 인해 전기세대에 비해 높다는 선행연구(한경혜, 2010; 방하남, 2011)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가구원수는 전기세대가 평균 2.80명, 후기세대가 3.25명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전기세대가 3.44점으로 후기세대의 3.51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인 경우를 나타내는 3점을 기준했을 때 전·후기 세대 모두 평균 이상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후기세대의 노후생활비준비가 전기세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후기세대는 상대적으로 은퇴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 경제적 상태가 양호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여력이 더 많은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에 전기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곽인숙, 홍성희, 2013) 재무적 노후준비의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추론된다.

표 2.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전기 n=1,035, 후기 n=1,105, 전체 n=2,140

변수	구분	전기		후기		전체	
		빈도/M	%/SD	빈도/M	%/SD	빈도/M	%/SD
성별	남	512	49.5	582	52.7	1,094	51.1
	여	523	50.5	523	47.3	1,046	48.9
연령	52세			276	25.0	276	12.9
	53세			278	25.2	278	13.0
	54세			330	29.9	330	15.4
	55세			221	20.0	221	10.3
	56세	252	24.3			252	11.8
	57세	226	21.8			226	10.6
	58세	227	21.9			227	10.6
	59세	176	17.0			176	8.2
	60세	154	14.9			154	7.2
		평균(M)/표준편차(SD)	57.76	1.379	53.45	1.071	55.54
배우자 유무	있음	888	85.8	940	85.1	1,828	85.4
	없음	147	14.2	165	14.9	312	14.6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84	37.1	219	19.8	603	28.2
	고등학교 졸업	497	48.0	588	53.2	1,085	50.7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154	14.9	298	27.0	452	21.1
가구원수	1명	75	7.2	59	5.3	134	6.3
	2명	410	39.6	251	22.7	661	30.9
	3명	274	26.5	292	26.4	566	26.4
	4명	213	20.6	390	35.3	603	28.2
	5명 이상	63	6.1	113	10.3	176	8.2
		평균(M)/표준편차(SD)	2.80	1.075	3.25	1.132	3.03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2	2.0	1	0.1	3	0.1
	불만족	42	4.1	35	3.2	77	3.6
	보통	518	50.0	502	45.4	1,020	47.7
	만족	447	43.2	531	48.1	978	45.7
	매우 만족	26	2.5	36	3.3	62	2.9
	평균(M)/표준편차(SD)	3.44	.624	3.51	.620	3.48	.623
노후준비 여부	준비함	325	31.4	414	37.5	739	34.5
	준비 안함	710	68.6	691	62.5	1,401	65.5



## 2. 연구대상의 재무적 요인 특성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는 재무적 준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공적연금은 후기세대의 가입률이 전기 세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연금은 전체적으로 낮은 가입률을 보인다. 개인연금에 의한 노후준비 비율이 낮다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사적연금 체계의 심각성을 말해준다(석재은, 이기주, 2010). 공적이전소득은 전·후기 세대 모두 없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정주원과 조소연(2013)은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인 빈곤을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후기세대가 전기세대에 비해 높은 보유 비중을 보이고 있어, 후기세대가 전기세대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소득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김영란, 주재선, 2010; 방하남, 2011)와 부합하고 있다.

자산규모면에서 살펴보면 금융자산은 후기세대가 전기세대에 비해 자산의 소득화가 용이한 은행예금이나 저축성보험 등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기세대 모두가 부동산자산 비중이 금융자산 비중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은 비상시 현금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경기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 은퇴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강소량, 최은영, 2016).

표 3. 연구대상의 재무적 준비 요인

전기 n=1,035, 후기 n=1,105, 전체 n=2,140

변수	구분	전기		후기		전체		
		빈도/M	%/SD	빈도/M	%/SD	빈도/M	%/SD	
공적 경제적 준비	공적연금 가입	있음	550	53.1	640	57.9	1,190	55.6
		없음	485	46.9	465	42.1	950	44.4
	공적이전 소득	있음	66	6.4	33	3.0	99	4.7
		없음	969	93.6	1,072	97.0	2,041	95.3
	M/SD(천원)		726.45	5806	224.82	1941	467.44	4278
사적 경제적 준비	개인연금 가입	있음	113	10.9	186	16.8	299	14.0
		없음	922	89.1	919	83.2	1,841	86.0
	퇴직연금 가입	있음	359	34.7	413	37.4	772	36.1
		없음	676	65.3	692	62.6	1,368	63.9
	사적이전	있음	192	18.6	106	9.6	298	13.9

변수	구분	전기		후기		전체	
		빈도/M	%/SD	빈도/M	%/SD	빈도/M	%/SD
소득	없음	843	81.4	999	90.4	1,842	86.1
	M/SD(천원)	379.95	1374	264.89	2486	320.54	2026
근로소득	있음	713	68.9	806	72.9	1,519	70.9
	없음	322	31.1	299	27.1	621	29.1
금융소득	없음	322	31.1	299	27.1	621	29.1
	M/SD(천원)	17561	19317	24232	24911	21004	22621
부동산 소득	있음	261	25.2	273	24.7	534	25.0
	없음	774	74.8	832	75.3	1,606	75.0
	M/SD(천원)	260.68	1156	350.22	2322	306.90	1852
	있음	72	7.0	42	3.8	114	5.4
	없음	963	93.0	1,063	96.2	2,026	94.6
	M/SD(천원)	1065	6930	425.15	3150	734	5333
가계 총지출	1,080~9,996	38	3.7	18	1.6	56	2.6
	10,010~59,940	889	85.9	931	84.3	1,820	85.0
	60,070~98,440	84	8.1	136	12.3	220	10.3
	100,140~269,050	24	2.3	20	1.8	44	2.1
	M/SD(천원)	35199	24676	40304	21347	37835	23153
부동산 자산	0~9,000	408	39.4	415	37.6	823	38.5
	10,000~97,000	209	20.2	223	20.2	432	20.2
	100,000~980,000	394	38.1	448	40.6	842	39.3
	1,000,000 ~3,000,000	19	1.9	17	1.5	36	1.7
	M/SD(천원)	148456	267472	143582	276995	145935	272387
금융 자산	0~1,000	609	58.8	600	54.3	1,209	56.5
	1,100~10,000	93	9.0	89	8.1	182	8.5
	10,160~40,000	283	27.3	352	31.9	635	29.7
	40,600~812,500	37	3.6	50	4.5	87	4.1
	M/SD(천원)	19026	51335	23787	63471	21487	57963

### 3. 재무적 준비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서열척도임을 고려하여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up>8)</sup>값이 전기세대는 1.118~2.360, 후기세대는 1.051~2.330으로 나타

나 모두 기준치 10미만을 충족하였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말해 주는 Nagelkerke R<sup>2</sup><sup>9)</sup>가 전기세대는 0.149, 후기세대는 0.229로 나타나 모형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MF<sup>10)</sup>검정결과 전·후기 세대 모두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연구모형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영향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라인 평행성(parallel lines)검증을 통해 평행선 가정의 모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Chi-Square값 전기세대=4267.111, 후기세대=2944.420).

<표 4>는 Ordered Logit Model의 분석결과<sup>11)</sup>로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들을 보여준다. 회귀계수(B)값이 정(+)으로 나타난 변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Wald 통계량으로 검증할 수 있다. Wald 통계량은 각 독립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며, Wald 통계량 값이 크면 클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8).

첫째, 전기세대의 경우 노후생활비준비여부,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부동산소득, 가계총지출, 금융자산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노후생활비를 준비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부동산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총지출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변수가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의 증가를 이끄는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연금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수의 크기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배우자유무, 노후생활비준비여부, 개인연금가입, 가계총지출, 교육수준, 부동산소득, 금융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기세대의 경우 노후생활비준비여부,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가계총지출, 금융

8) 상관계수가 0.8이상, 공차한계 값이 0.1미만,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Knoke & George, 2007; 유태균, 김경휘, 2013).

9) 로지스틱 분석에서 로그우도 함수값을 이용해 계산한 결정계수 R<sup>2</sup>를 pseudo R<sup>2</sup>라고 하며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값이다(홍세희, 2008). 전기세대(Cox & Snell: 0.126, Nagelkerke: 0.149, McFadden: 0.071), 후기세대(Cox & Snell: 0.194, Nagelkerke: 0.229, McFadden: 0.090).

10) MF(Model Fit)검정은 절편만 있는 모형과 최종 모형의 -2LL 차이를 구한 chi-square 검정결과로 모델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Lee et al., 2009).

11) Ordered Logit Model 분석에 있어 odds ratio를 이용한 해석이 가장 많이 쓰이나, 본 연구의 통계프로그램인 SPSS에서는 odds ratio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B, S.E, Wald value, P value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산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노후생활비를 준비 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계총지출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적이전소득과 연령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배우자유무, 노후생활비준비여부, 가계총지출, 교육수준, 연령, 공적이전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적 준비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연금 은 전기세대의 삶의 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은 후기세대에게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동산소득이 많을수록 전기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반면 후기세대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은 후기세대의 삶의 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개별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이다. 공적연금가입이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 가입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한 기존연구(곽민주, 이희숙, 2015)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2011)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소득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개인연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시기가 비교적 짧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이지영, 2011).

공적이전소득<sup>12)</sup>이 있을수록 후기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석상훈과 김현수(201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사적이전소득은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준비에

---

12) KReIS 6차 자료의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두 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 시점인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한 인식이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사적인 도움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를 준비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수의 선행연구(Gitmez & Morcol, 1994; 박창제, 2014)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신(2012)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경제적 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무적 노후준비의 부족을 초래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연구(강소량, 최은영, 2016; 고나경, 2017)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하남(2011)은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근로소득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금융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생애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으로 축적한 금융자산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계총지출은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가계총지출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파악한 선행연구(백경숙, 2007; 이신숙, 2017)와 일치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황을 반영하는 대리변수(석재은, 이기주, 2010)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안정되고 소득수준이 높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연구(최성재, 장인협, 2003)와 일치하고 있다. 배우자의 존재가 심리적·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며 배우자에 의한 지지적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근로소득은 전·후기 세대 모두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은퇴로 인해 상용직이었던 주된 일자리에서 임시직으로 옮겨가는 고용형태의 변화(경기연구원, 2014)와 노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노동시장 참여로 얻는 근로소득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강소량, 최은영, 2016).

한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SOC 모형의 관점에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전략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생활비준비여부로 측정한 선택전략(S)은 전·후기 세대의 공통적인 SOC 전략별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으로 측정한 최적화전략(O)은 전기세대에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개인연금 가입은 전기 세대의 SOC 전략별 결정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으로 측정한 보상전략(C)은 후기세대의 SOC 전략별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기세대의 경우 최적화전략이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후기세대의 경우 보상전략이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최적화전략의 영향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상전략의 영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안지연, 김애순, 한광희, 1998)와 일치하고 있다.

김미혜와 신용연(2013)은 SOC 대처전략으로서 재무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 노후준비가 선택과 최적화 전략의 사용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하는데 SOC 전략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이처럼 SOC 대처전략에 대한 실증적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SOC 대처전략이 재무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SOC 대처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4. Ordered Logit Model의 분석결과

구분	전기			후기			전체					
	B	S.E.	Wald	P	B	S.E.	Wald	P	B	S.E.	Wald	P
상수항1	-1.939	3.250	.356	.551	-6.496	3.717	3.055	.080	-1.916	1.628	1.386	.239
상수항2	1.229	3.176	.150	.699	-2.828	3.587	.622	.430	1.449	1.526	.902	.342
상수항3	4.783	3.177	2.267	.132	1.037	3.585	.084	.772	5.120**	1.529	11.218	.001
상수항4	8.483**	3.188	7.080	.008	4.884	3.590	1.851	.174	8.873***	1.540	33.218	.000
독립 변수	.108	.158	.464	.496	-.090	.169	.286	.593	.015	.115	.016	.899
공적연금 가입	-.539*	.230	5.477	.019	-.229	.192	1.417	.234	-.341*	.145	5.482	.019
개인연금 가입	-.233	.155	2.061	.151	-.102	.149	.465	.495	-.160	.106	2.272	.132
퇴직연금 가입	-.023	.033	.482	.488	-.103*	.047	4.753	.029	-.044	.027	2.756	.097
공적이전소득	-.003	.024	.012	.913	-.050	.031	2.655	.103	-.017	0.019	.789	.375
사적이전소득	.621***	.156	15.859	.000	.816***	.151	29.327	.000	.721***	.107	45.045	.000
노후생활비준비	-.206	.171	1.457	.227	-.237	.172	1.882	.170	-.227	.120	3.548	.060
성별	-.002	.048	.002	.966	-.132*	.059	5.037	.025	.021	.019	1.179	.278
연령	.256***	.072	12.734	.000	.209**	.077	7.305	.007	.233***	.052	20.021	.000
교육수준	.647**	.218	8.812	.003	1.132***	.226	25.042	.000	.938***	.155	36.509	.000
배우자유무	-.057	.073	.607	.436	-.066	.068	.919	.338	-.060	.0491	1.450	.299
가구원수	-.004	.021	.043	.835	-.016	.021	.582	.446	-.009	.014	.409	.522
근로소득	.022	.030	.527	.468	-.006	.028	.054	.816	.005	.020	.057	.812
금융소득	.074*	.030	6.331	.012	.025	.039	.417	.518	.052*	.023	5.107	.025
부동산소득	.288*	.143	4.049	.044	.579**	.168	11.944	.001	.406***	.108	14.012	.000
가계총지출	.004	.015	.079	.778	.025	.015	2.645	.104	.015	.011	2.037	.154
부동산자산	.068***	.018	14.551	.000	.076***	.017	19.175	.000	.072***	.012	34.335	.000
금융자산												
-2 Log Likelihood		1.981.994***				2102.457***				4091.514***		
Pearson chi-square		4267.111				2944.420				8011.804		
Nagelkerke R <sup>2</sup>		.149				.229				.183		
N		1035				1105				2140		

\* p<.05 \*\* p<.01 \*\*\* p<.001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기세대와 후기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재무적 준비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변수들은 금융자산, 가계총지출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개인연금, 부동산소득에서는 전·후기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이 파악되었다.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노후생활비준비여부로 나타났다으며, 연령은 전·후기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비교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이질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체계는 전기세대와 후기세대의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욕구를 고려하고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목적과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이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적 노후보장체제인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999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50대 가구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공적연금의 강화 없이는 적정 수준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다층노후보장제도를 토대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성공적 노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개인연금 가입이 전·후기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되는 개인연금은 제도 도입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노후보장기능이 미흡하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고찰한 이지영(201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현재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OECD



주요 선진국가들도 공적 보장제도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보장의 한계를 직면하고 사적 노후보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공적 노후보장기능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도 공적 노후보장과 사적 노후보장을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퇴직연금 가입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시기와 맞물려 부모부양과 자녀에 대한 가계지출이 많은 시기이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화하여 실제적인 노후보장의 안정망 역할을 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급방법에 대한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전·후기 세대 모두 금융자산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생애발달 주기상 자녀 교육비나 결혼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근로기간동안 축적된 금융자산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한 선행연구(남상호, 2011; 반정호, 2011)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나경(2017)은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기간을 통해 획득한 금융자산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론하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은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은퇴 후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우석진, 2011).

마지막으로, 기존연구(이승진, 2012)에서와 같이 노후생활비를 준비할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를 위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uccessful Aging을 지향하는 Baltes와 Baltes의 성공노화 이론인 SOC Model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기존에 검증되고 활용된 분석적 틀을 참고할 수가 없었다. 특히, 독립변수로 설정한

사적이전소득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가계 경제행태를 규정하는 주요변수이다. 자녀투자를 통한 사적이전소득 획득은 한국사회 부양관계의 특성을 담고 있는 노후소득원이기 때문에 SOC 모형의 최적화전략과 보상전략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한적인 2차 자료를 토대로 변수를 재구성함에 따라 이러한 SOC 전략을 측정하는데 있어 SOC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간 차이에 따른 SOC 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를 갖는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라는 특정 코호트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내 연령의 이질성에 기초하여 전·후기 세대로 구분함으로써 세대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간 비교 연구를 한 선행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KReIS 6차 연도 자료를 활용한 횡단모형을 적용하여, 방법론적 측면에서 변수들 간의 역인과(reverse causality)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인과 문제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longitudinal research design)를 통해 내생성을 통제하고 역인과 관계의 가능성을 더욱 엄밀하게 차단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대표성 있는 패널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지만 재무적 노후준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영역의 적용에 제한이 있었다. 재무적 변수 이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내적 영역인 심리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하위 영역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재무적 노후준비 이외의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KReIS의 6차 연도 데이터만 활용하여 패널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계를 분석단위로 포함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수들의 변화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종단

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박명아는 현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친고령특성화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은퇴 전환기 재무적 노후준비, 다층노후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효과와의 종단적 접근, 은퇴설계 등이다.

(E-mail: buddha26@naver.com)

조시울은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친고령특성화대학원)에서 노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건강노화, 성공적노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등이다.

(E-mail: radioos@naver.com)

신혜리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연구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이며, 현재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Itc.schinhyeri@gmail.com)

박설우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연구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비자행동, 시니어 비즈니스이며, 현재 여가와 노인 삶의 질 관계, 노인 소비행복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wpark728@gmail.com)

김영선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친고령특성화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령화정책, 건강정보 이해능력(health literacy), 이동지원등 건강노화서비스, 기술노년학(gerontechnology) 및 기술수용 모델, 고령친화산업 등이 있다.

(E-mail: ysunkim@khu.ac.kr)

## 참고문헌

---

- 강소랑, 최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사회보장연구*, 32(2), pp.1-30.
- 강해자. (2013). 노인의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경기연구원. (2014). 경기도 베이비붐 세대 고용관련 보고서. 수원: 경기연구원.
- 고나경. (2017). 베이비붐 세대와 예코 세대의 재무상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7(1), pp.1-42.
- 곽민주, 이희숙. (2015). 재무적 요인이 은퇴자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pp.2-30.
- 곽인숙, 홍성희. (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후기 집단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pp.147-742.
- 국민연금연구원. (2015). *유저가이드 ver. 6.0*.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연구*, 22(1), pp.97-121.
- 김동배, 박은행, 김성웅. (2009). 고령자의 자산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3), pp.471-494.
- 김미혜, 신용연. (2013). 세대별 성공적 노후를 위한 선택·최적화·보상(SOC)전략의 활용: 경제적 노후보장을 중심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논문집(제3회)*,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김시월, 조향숙. (2013).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비교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pp.1-33.
- 김영란, 주재선. (2010). 베이비붐 세대 남녀 특성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민. (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혜경, 마경희. (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기 베이비부

- 며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2), pp.31-70.
-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 (2010).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pp.220-254.
- 남상호. (2011).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Issue & Focus, 115, pp.1-8.
- 류건식, 이봉주. (2008).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분석. 국제경영연구, 5(3), pp.189-205.
- 박명아. (2018).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박성준.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SOC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 박시내, 심규호. (2010). 베이비부머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대전: 통계개발원.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pp.47-78.
- 박창제. (2014).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사적 재무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7(4), pp.327-351.
- 박태정. (2013).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pp.29-57.
- 반정호. (2011). 한국 은퇴세대의 근로생애와 경제적 복지수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방하남. (2011).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리뷰, 2, pp.5-9.
- 백경숙. (2007).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35(1), pp.87-106.
-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2016). <http://www.activebb.kr>에서 2016.4. 인출.
- 서울 50 플러스. (2016). 50+앙코르 커리어 확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서울: 서울시 50+재단.
- 서인옥. (200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석상훈, 김현수. (2013).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pp.5-241.

- 석재은, 이기주.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pp.25-74.
- 손종철. (2009).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제401호, pp.1-47.
- 송혜자. (2009). 노인의 역할수행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SOC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신현구.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애 주요 일자리 특성. 노동리뷰, 45(9), pp.62-78.
- 안지연, 김애순, 한광희. (1998).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최적화 보상전략과 대처행동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제1호). 서울: 한국심리학회. pp.323-341.
- 여윤경, 정순희, 문숙재. (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pp.129-155.
- 우석진. (2011).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복귀. 한국노년학, 30(2), pp.323-341.
- 유태균, 김경휘. (2013).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기초원리. 서울: 공동체.
- 이기성. (2005).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성우. (2005). 로짓·프로빗 모형. 서울: 박영사.
- 이수현. (2017). 노인의 이동성과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승신. (2012).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 연구, 15(4), pp.43-61.
- 이신숙. (2017). 일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형성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pp.555-572.
- 이지영. (2011). 베이비부머 가계 연금소득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현진. (2014).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임동진, 문상호. (2014). 장애인의 경제요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

- 학회보, 24(2), pp.73-101.
- 임병인, 강성호 (2005).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험개발 연구, 16(3). pp.89-122.
- 정의신 (2008). 계층별 사적이전에 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30, pp.191-223.
- 정주원, 조소연 (2013). 주관적 노후인식이 60대 중·고령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건사회연구, 33(4), pp.155-184.
- 정호성 (2007).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최성재, 장인협 (2003).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6).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조사. 대전: 통계청.
- 한경혜 (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라이프코스과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서울: 한국노년학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신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한혜경 (2016). 베이비붐 세대 남성 은퇴자의 가족생활 만족·불만족 근거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7(1), pp.5-35.
- 함인희 (2002).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서울: 나남출판사.
- 행정안전부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 행정안전부.
- 홍성희, 곽인숙 (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pp.193-207.
- 홍세희 (2008).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파주: 교육과학사.
- Anderson, M., Li, Y., Bechhofer, F., McCrone, D., & Stewart, R. (2000). Sooner rather than later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preparing for retirement. *Ageing and Society*, 20(4), pp.445-466.
- Armstrong, Dave, & Michelle Jackson. (2011). Intermediate Social Statistics Classes, Week5: *Ordered Logit and Probit*. [http://www.quantoid.net/ISS\\_week5\\_09.pdf](http://www.quantoid.net/ISS_week5_09.pdf) 에서 2011.8.8.. 인출.
- Backman, L., & Dixon, R. A. (1992). Psychological Compensation: A Theoretical

-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12, pp.1-25.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u, K. L., & Chi, I. (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8, pp.823-833.
- Doepke, M., Hazan, M., & Maoz, Y. (2015). The baby boom and World War II: A macroeconomic analysi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2(3), pp.1031-1073.
- Easterlin, R. A., Schaeffer, C. M., & Macunovich, D. J. (1993).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497-522.
- Freund, A. M., & Baltes, P. B. (2002). Selection, Optimization &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Indicator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13(4), pp.531-543.
- Gitmez, A. S., & Morcol, G. (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Turk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1), pp.77-98.
- Glass, T. A. (2003). Assessing the success of successful ag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s*, 139(5), pp.382-383.
- Jopp, D. (2002). *Successful aging: on the functional interplay between personal resource and adaptive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Doctorial, Free University Berlin.
- Jopp, D., & Smith, J. (2006). Resources and Life-Management Strategies as Determinants of Successful Aging: On the Protective Effect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Psychology and Aging*, 21(2), pp.253-265.
- Keister, L. A., & Deeb-sossa, N. (2001). Are Baby Boomers Richer than Their Parents?. Intergeneration Patterns of Wealth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pp.569-579.
- Knote, D., & George, W. (2007). *사회 통계학: 원리와 실제(4판)*. (장상희, 이상문, 역).



서울: 교우사. (원서출판 2002).

- Lang, F. B., Rieckmann, N., & Baltes, M. M. (2002). Adapting to aging losses: Do resources facilitate strategies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Psychological Science*, 57(B), pp.501-509.
- Lee, G. R., No, J. K., & Kang, K. W. (2009). Development of Bicycle Level of Service Model from the User's Perspective Using Ordered Probit Model. *Korean society of ITS*, 8(2), pp.108-117.
- Lusardi, A., & Mitchell, O. S. (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1), pp.205-224.
- Morgan, L., & Eckert, J. K. (2004). Retirement Financial Preparation: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16(2), pp.19-34.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1), pp.134-143.
- Pinquart, M., & Schinder, I. (2007). Change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 Latent-class Approach. *Psychology and Aging*, 22(3), pp.442-455.
- Sabelhaus, J., & Manchester, J. (1995). Baby boomers and Their Parents; How Does Their Economic Well-being Compare in Middle Ag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4), pp.791-806.
- Staundinger, U. M., & Freund, A. M. (1998). Sick and poor in old age and still in good spirits? A study of psychological resilience. *Psychology*, 27, pp.78-85.
- Yuan, S. C. W. (2006). *Determinants of Awareness and Knowledge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Future Care Needs among Older Adul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The Impact of Financial Prepar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A Comparison of the Early and the Late Baby Boomers

**Park, Myeong A**  
(Kyung Hee University)

**Cho, Si Wool**  
(Kyung Hee University)

**Shin, Hyeri**  
(Kyung Hee University)

**Park, Seol Woo**  
(Kyung Hee University)

**Kim, Young Sun**  
(Kyung Hee University)

---

This study is to analyze financial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baby boomers based on Baltes & Baltes' SOC model.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2,140 baby boomers were selected from the 6th KReIS (2015). And then baby boom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year of their birth. Early baby boomer cohort consisted of 1,035 respondents who were born from 1955 to 1959 and late baby boomer cohort was composed of 1,105 respondents who were born from 1960 to 1963. Ordered Logit Model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1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variables that had a commonly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of both cohorts were financial assets and household expenditure. But the life satisfaction of both cohorts differs in terms of variables such as private pension, public transfer income and real estate income. It is expected t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both cohorts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policy direction and the practical alternatives optimized for the needs of both cohorts. It is significant tha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by boomer cohort's financial preparation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s a SOC coping strategy.

---

**Keywords:** The Early & The Late Baby Boomers, Financial Preparation, Life Satisfaction, SOC Theory, KReIS